

5-04. 넷째 주. 믿음이 자라기 위해선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 하는 것들의 증거니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히브리서 기자는 이 짧은 말로 믿음을 간단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이 짧은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hypostasis 로서 “밑에 받치는 것[a *setting under (support)*]” 이란 뜻입니다. 즉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받치는 받침대이다(under). 또는 바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 받쳐진다(by)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활주로에서 바퀴가 빠져 다른 비행기와 충돌하면 어떻게 하지? Terrorist 에게 납치될 가능성이 있어! 하는 의심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한국에 가고 싶어도 못가게 됩니다.

(그래도 자신은 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파스칼이 한 말 “이 세상에는 100% 완전한 회의 주의자는 없다” 고 말할 것.).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의심이 지배하여 믿음을 잃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이 받침대를 잃어 버렸단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받쳐 주며, 바라는 것은 든든한 믿음에 의해 받쳐 져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장소에 자영 business 를 open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십시오. 혹은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또는 남편 구원 문제, 자녀문제--etc. 등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소원이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갖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받침대가 든든 할 때 하나님은 이 믿음의 바탕위에서 일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든든히 받쳐 있습니까? 이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 당기는 지남철과 같습니다(마가 5:25-34 혈루병 여인의 예).

그런데 성경을 보니 단번에 큰 믿음을 소유하여 큰 역사를 일으킨다고 되어있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찌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데후 1:3),”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 2:2)”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점점 어른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성장하는 사람은 끝내 영육간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될까요?

그러면 먼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공부해 보십시오.

## I. 믿음의 본질 :

신학자들은 믿음의 삼요소를 **지식(knowledge) 동의(Consent) 신뢰(Trust)**로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는다는 믿음의 내용 즉 지식과, 그 내용이 옳다고 하는 감정의 동의, 또 지식과 동의에 대한 신뢰를 필요로 합니다. 지식은 이성의 작용이며, 동의는 감정, 신뢰는 의지의 작용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전인격의 활동입니다. 사람이 지식만을 강조할 때 신앙은 Cold 하며, 감정이 강조될 때 맹목적이 됩니다. 지정의가 골고루 갖추어져야 균형 잡힌 신앙이 됩니다.

## II. 믿음의 종류

### 1. 일반적인 믿음(common faith)

일반적인 믿음은 믿는 자, 안믿는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은행을 믿고 돈을 맡기며, 의사를 믿고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없으면 한 초(秒)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특별 섭리로 개입하실 필요가 없는 믿음입니다.

### 2. 하나님의 믿음(Ekte Piston Theu) 초자연적 믿음

일반적인 믿음과 매우 대조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믿음과는 아주 다른 것으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생깁니다(롬 10:17).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을 때 이 말씀은 Logos(The Rational thought In God's Mind)가 아닌 Rehma(The Thought Uttered As a Word)로써 Logos 가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성령께서 그것을 도구로 하여 믿음이 생기게 하십니다. 이 레마가 믿음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에도 **구원을 얻는 믿음(saving faith)과 실용적인 믿음(practical faith)**이 있습니다.

2.1 구원을 얻는 믿음(saving faith) ;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 신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자라는 것이 아니고 단번에 하나님의 선물로 갖는다.

2.2 실용적인 믿음(practical faith) :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되는 믿음으로 신자마다 믿음의 양이 다르다. 하나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함으로 더욱 강화된다.

### III. 구원 얻는 믿음(saving faith)의 의미

#### 1.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믿음

John Calvin은 말하길 로마 천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 일체와 구속은 가르쳤으나, 그 구속을 개인적으로 자기에게 적용하는 법은 가르쳐 주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에 관한 교리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영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구원얻는 믿음에 대해서 불충분한 개념 혹은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삼요소인 지식 동의 신뢰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동의하나 신뢰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곡예사가 나이아가라 폭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밧줄을 걸쳐 놓았습니다. 물론 밧줄 밑에는 폭포에서 쏟아진 물이 큰 폭음을 내며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곡예사는 구경하는 사람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사람을 등에 업고 이 밧줄을 타고 저쪽으로 건너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그럴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그 곡예사는 “그러면 한사람만 나와서 내등에 올라타고 나와 함께 건너 갑시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을 때, 한 어린 아이가 자기가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이 예가 말하고 있는 것은, 지식적으로는 그 곡예사의 곡예 능력이 자신을 업고 건너 갈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럴 수 있다고 동의를 하여도, 신뢰하지 못하므로 곡예사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에 동의하나 신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절벽의 이 쪽은 사망이고 저쪽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튼튼한 밧줄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곡예사는 예수님이며, 밧줄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라고,

이 곡예사의 비유가 보여 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어도, 신뢰를 하지 않아,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께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신앙을 단순 지적 신앙(Mere Acceptance of knowledge of Christ)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신인(God-Man)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을 믿고, 예수님에게 천국 가는 길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에 들어 간다. 천국까지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다 하며, 자신의 생명과 미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데리고 가신다’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수십년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이 ‘죽어봐야 안다’ 고 하며,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얻는 믿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만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얻는 믿음에는 지식과 동의에 신뢰가 따라야 합니다.

## 2.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의 예

그런데 다른 편에서 선행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즉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이지요. 이런 것들은 인간의 타락때문에 Dead Works 가 되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도 충족해 줄수가 없고,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선행은 단지 중생한 성도가 행하여 할 생활 수칙입니다.

## 3. 교회 안에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의 오류

또 구원얻는 믿음 같으면서도 실상은 전혀 다른 믿음이 있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행을 의지하고, 병이 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루터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회심하기 전에 그는 회의론자(skeptic)나 불가지론자(agnostic)나 무신론자(atheist)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동안에 그는 틀림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안전과 숙식과 건강을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가? 분명히 의지했습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 “이신칭의(以信稱義)” 의 진리를 알고 믿기 오래 전에 그는 믿음으로 안전한 여행을 할수 있다는 사실 곧 “이신여행(以信旅行)” 의 진리에 대해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는 후에 한참 지나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과 현세적인 복을 위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